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전담심의)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16:09~17:51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효서, 문태준, 송수연 전담심의위원, 정대훈 전담심의관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기존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그 형식과 내용을 확장, 새롭게 개편된 사업입니다. 창작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위원회 플랫폼을 활용한 발표 기회 제공 및 창작 공간 지원, 창작과 관련된 후속 지원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창작지원금 형태의 사업이 펠로우십으로 바뀐 데에는 문학계 안팎의 변화와 다양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 이를 창작의 영역에 적용, 한국문학의 다변화를 꾀하고 문학의 내실을 다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한국문학예술위원회의 시도가 담겨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국문학 창작자의 창작 역량을 증진하고 한국문학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심의위원들은 진중한 마음가짐으로 엄정하고 꼼꼼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소설, 시, 시조, 비평, 수필, 희곡, 동화, 동시 총 8개 분야에서 각 분야의 심의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1차 심의를 보았습니다. 심의는 심의위원 각자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채점하는 사전전수검토와 심의위원들이 모두 모여 사전전수검토 내용을 토대로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차 심의에 올릴 최종 작품을 2배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심의 역시 심의위원의 사전전수검토와 대면심사, 이렇게 두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심사의 심의기준은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지침, 가이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작가가 그간 얼마나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본 사업지원을 통해 각 분야의 예술가로서 새로운 성취가 기대되는가의 여부를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촘촘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지원서류 작성이 미흡하거나 서툰 경우도 일부 있었고, 향후 활동이나 기대 효과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이거나 모호해 보이는 서류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창작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작가의 창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방향의 지원과 심의가 궁극적으로 작가의 창작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고 있는 문학 안팎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설 부문 8명, 시와 시조 9명, 비평 2명, 수필 2명, 희곡 2명, 동화 5명, 동시 부문 2명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심의 이후, 모든 심의위원이 공통적으로 더 많은 작가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원한 많은 작가 분들이 이미 자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아직 신인이라 부를 수 있는 연차임에도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룬 문학적 성취와 작가로서의 명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작가 여러분들에게 다소라도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후 더 많은 작가들이 펠로우십을 통해 자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해주신 작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심의위원 일동